

4년의 임기를 마치며



● 변창구 학장

인문대 가족 여러분,
저는 7월 22일 인문대 학장으로서의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그동안 학장의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면, 모두 인문대 교수님과 학생, 직원, 동문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도와주신 인문대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4년 전 저는 첫 임기를 시작하며 몇 가지 과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기초 및 전공 교육의 내실화,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인문대 구성원간 소통의 증대, 사회교육을 통한 인문학 저변 확대 등입니다. 여기에 인문대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한 환경 개선과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라는 과제가 곧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양교육센터와 국제화지원센터 등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환경 개선과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된 부문도 있으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들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부문들도 있습니다. 제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의욕만 앞서서 정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듯합니다. 이런 일들을 남겨두고 떠나려니 두려움과 아쉬움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미처 못 다한 일들은 이제 후임 학장께서 저보다 뛰어난 안목과 능력으로 추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는 학장직을 떠나며 제가 앞으로의 인문대학을 그려 보며 느끼는 소회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며 제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문대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교수들의 연구, 교육 및 연구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인문대학은 과거 1~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교육 면에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기초학문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인문대학은 기초교양교육을 창의적이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왔으며, 아울러 학부의 전공교육도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인문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구미 각지의 대학에 유학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데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문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배출하는 박사들이 세계 명문대학 출신의 박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업으로 박사과정 학생들의 장기 국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인문대학이 길러내는 학문후속세대가 큰 포부를 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신진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을 비롯한 인문대 가족 모두는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통해 노력하고 학교 측도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자 우리 학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월 23일자로 서울대학교의 교육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게는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의 교육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으나, 저는

계속 인문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제 업무를 너그려이 성원해 주신 인문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면서, 또 신임 학장님의 리더십 아래 인문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믿으면서 이만 줄입니다.

인문대 학장 변창구

황경식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함

정년퇴임은 축복받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더구나 다방면에서 역량을 두루 펼치면서 학덕을 두텁게 쌓고 학교생활을 마치는 황경식 교수님의 정년퇴임은 더욱이나 그렇다. 황경식 교수는 그간 학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서도, 각종 모임의 명사 회자로서도, 신 고금소총(古今笑叢)의 대가로서도, 뽕짝부터 창까지를 아우르는 명창으로서도, 최근에는 전통 예술품 감식가로도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주었다. 필시 '다재 다능'이라는 말은 이런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일 것이다.



● 철학과 황경식 교수

그런데 자칭 다재다능은 학자에게는 흠 아닌 흠이 될 수 있는 터라, 경우에 따라서는 발휘를 억제하는 것이 좋을 법하다. 사람들은 남의 핵심적인 공적을 흐리게 할 의도로(본능적으로) 주변적인 공이나 장점을 부각시켜 보거나 말하는 경향이 있고, 본인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주변적인 성과의 흐트함에 빠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집중력을 잃는 수가 있으니 말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재능과 공적으로 인해 학자로서 황경식 교수의 진면목이 가려졌을 것이나, 그의 학자로서의 탁월함은 더욱 비상하여 찬연하게 빛을 발한다.

황경식 교수는 논문들은 헤아릴 것도 없이, (공저 포함하여) 무려 88권의 저역서를 펴냈고, 윤리학 관련 학회를 창설하였으며, 한국철학회의 회장(2009~2010)으로서 학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윤리학 분야에서 그는 논제의 선점능력, 논변의 충실도, 결론의 타협적 생산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성을 보여주었고, 근면 성실한 학구열이 추진체가 되어 대대한 학문적 업적을 냈다. 그의 논제 선점능력은 세계 문화와 철학의 과제에 대한 식견과 넓은 시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충실한 논변은 그의 지적 철저성의 반영이고, 결론의 생산성은 이론과 현실의 접목에 대한 절실한 소망의 표현이다. 그러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황 교수님은 인문대학 최초로 '국가 석학'에 선정되고, 퇴임에 즈음해서도 대저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아카넷, 2012)를 출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황경식 교수께서 앞으로 남은 충분한 시간 동안 그간의 공리와 역행을 "황경식(덕행)이론"으로 발전시킬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백 중 현(철학과 교수)